

여천NCC, 장애인 서울나들이 행사

여천NCC 수영 동호회는 최근 여수 쌍봉사회복지관 소속 지체 장애우들을 초청해 <서울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애인 31명, 쌍봉사회복지관 복지사 4명, 여천NCC 직원 가족 35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10여명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수영 동호회는 2005년부터 장애인 대상, 수영을 가르치는 <곰두리 수영교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문화 체험 행사는 지체 장애우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가족 봉사자들에게는 장애우들에 대한 이해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서울 나들이 행사에는 63빌딩 관람을 비롯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 체험,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화학저널 2008/10/14>